

코로나로 불 지핀 홈스쿨링... 이통사, 교육 공백 채운다

교육-기술 결합 '에듀테크' 가시화
에듀테크 시장, 가파른 성장세
이러닝 단계 넘어 맞춤형교육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이 늘면서 원격수업, 언택트(비대면) 교육이 각광받고 있다. 교육과 기술이 결합하는 차세대 교육인 '에듀테크'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 교육 시장 업계와 합종연횡을 하는 등 비대면 교육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웅진씽크빅과 손잡고 구독형 교육 상품 '웅진스마트'를 출시했다. 지난 8일 진행한 양사 업무협약 일환이다. 이를 통해 교육용 상품 또한 휴대폰 요금을 통해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웅진스마트는 약 500억건의 학습 데이터를 집약한 전과목 AI스마트학습 플랫폼이다. SK텔레콤에서 이 상품을 구독하면, 통신 요금을 지원해준다. 이



KT의 온라인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 모습. /KT



아이들이 'U+아이들생생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는 초등학생이 많이 가입하는 ZEM 스마트요금제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수준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웅진씽크빅과 협력, 자사 12세 이하 타깃 브랜드 ZEM과 연계해 과목 특화형 상품, 중·고등 등 다양한 상품으로 유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와이파이(Wi-Fi) 기반의 학습용 단말에 통신 모듈을 탑재해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KT는 시공그룹과 손잡고 언택트 교

육 서비스 대중화에 나서고 있다. KT는 시공그룹의 교육 관련 계열사인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스크림에듀, 피디엠 등 3개 회사와 함께 유치원생 및 초·중등학생 대상 홈스쿨링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섰다. 통신상품과 아이스크림에듀의 초·중등 교육 서비스 'AI홈런'을 결합한 제휴 상품인 '아이스크림 AI홈런'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원격 수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

울 소재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대성과 손잡고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토틸 교육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이나 수업 중 학생 집중도 확인 기능, 강의록 자동 저장 기능 등도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CEO 직속으로 스마트교육사업단을 마련하고, 비대면 시대 교육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사 인터넷TV(IPTV)

'U+아이들나라'를 통해서다. 지난달에는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양측은 'U+아이들나라' 내에 유아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반영하기도 했다. 양측은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효율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U+아이들나라의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월 이용자는 2019년 106만명에서 2020년 140만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교육시장분석업체 홀론아이큐(HolonIQ)에 따르면,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1520억달러(167조 8000억원)에서 2025년 3420억달러(377조 6000억원)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플랫폼 역량을 교육과 결합하면, 단순히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e-learning) 단계를 넘어 맞춤형교육까지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차 '아이오닉 5', 친환경 공법 대거 적용

실내 터널부 없앤 플랫폼 플로어
실내 이동 편의성·공간 활용성 ↑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강조

현대자동차그룹이 실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시킨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15일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의 내부 티저 이미지와 주요 실내 사양을 공개했다. 아이오닉 5는 E-GMP를 적용한 첫 번째 차량으로 최적화된 공간 설계를 통해 실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탑승자 모두를 위한 '거주 공간(Living Space)'이라는 테마가 더해져 전용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내부 디자인을 갖췄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내연 기관차의 구조적 한계였던 실내 터널부를 없앤 플랫폼 플로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콘솔인 '유니버설 아일랜드' ▲슬림해진 콕핏(운전석의 대시보드 부품 모듈) ▲스티어링 휠 주변으로 배치한 전자식 변속레버(SBW)를 적용해 실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내부 공간을 다



현대차 아이오닉 5 내부 티저 이미지.

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리받침(레그서포트)이 포함된 1열 운전석·동승석 릴렉션 콤포트 시트는 등받이와 쿠션 각도 조절로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여줘 편안한 주행을 비롯해 주·정차시 편안한 휴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이오닉 5 내부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와 친환경 공법을 대거 적용해 모빌리티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이오닉 5는 가죽 시트 일부와 도어 팔걸이(암레스트)에 재활용 투명 페트병을 분쇄하고 가공해 만든 직물을, 도어와 대쉬보드, 천정과 바닥 부분에 사

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사용했다.

또 시트 가죽 염색 공정에는 아마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이 적용됐으며, 스티어링 휠, 스위치 등 손이 닿는 부분은 유채꽃, 옥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활용한 바이오 페인트가 사용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의 모습을 보여줬다.

현대차는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 모델에도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은 기자 ysw@

시리즈벤처스 제이제이앤컴퍼니스에 1.5억 투자

AI 기반 양식장 제어 시스템 개발사

액셀러레이터 시리즈벤처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수산양식 설비 개발 및 해양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제이제이앤컴퍼니스에 1억 5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양식업계에 스마트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이제이앤컴퍼니스는 친환경, 첨단 방식의 '트라이앵글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양식 산업 혁신에 나섰다.

'트라이앵글 시스템'은 인공지능(AI)

를 활용한 통합 양식장 제어 시스템으로 3가지 주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 우선 'ICT 기반의 중력식 여과설비 제어 시스템'을 통해 설비 성능 및 고장을 예측해 설비 가동률을 향상시켰다. 통합제어 시스템 기반으로 설계한 '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은 각 설비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방식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SKT, AI 품은 무선 이어셋 '누구 버즈'

음성 명령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SK텔레콤은 드림어스컴퍼니의 아이리버 브랜드와 함께 'T전화x누구' 전용 무선 이어셋 '누구 버즈(NUGU buds)'를 15일 출시했다.

누구 버즈는 SKT의 인공지능 기술과 아이리버의 사운드 노하우를 더한 무선 이어셋이다. 'T전화x누구'와 연동해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다.

누구 버즈를 사용하면 별도의 스마트폰 조작 없이 이어셋 착용 및 터치만으로 'T전화x누구'를 호출, SKT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음성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 버즈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T114 전화번호 검색 ▲전화 발신



모델이 '누구버즈'를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문자 전송 ▲스마트홈 제어 등이다.

누구 버즈는 SKT의 통화품질 최적화 기술과 2개의 마이크 탑재로 선명한 통화 품질을 제공한다. 퀄컴의 cVc 기술과 아이리버 사운드 마스터의 음질 튜닝 기술을 적용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며,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해 최대 19.5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뉴 포드 익스페디션' 사전계약 실시

내달 출시 예정

포드 대형 SUV가 국내에 들어온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15일 뉴 포드 익스페디션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8240만원이다.

익스페디션은 풀사이즈 대형 SUV로, 익스플로러 모델보다 더 크고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 오는 3월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3.5L V6 에코부스트 엔진에 10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운전자 보조 시스템 코-파일럿도 사용할 수 있다. 7인승이나 8인승으로, 2열과 3열을 접을 수 있다.

포드는 최근 국내에서는 대형 SUV



뉴 포드 익스페디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가족과 함께 독립된 공간에서 즐기는 차박, 캠핑 등 아웃도어 레저 활동이 트렌드로 변모하면서 넓은 실내공간과 여유로운 적재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익스페디션 모델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